FDD
Korea
3 -MAY 26
Copy ______ 1959

박 승히 그림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은 전 세계 근로 인민의 명절

10월호 1957년 (83)

활살

전체 조선 인민은 열렬히 환영한다

박 승하 그림

40년간의 변화

김 광 현

미국 어느 한 거리에 자동차가 스르르 밀려 가다가 맞고 커다란 코에 안경을 부친 뚱뚱보 늙은이 《신사》가 내려서 자기 사무실로 향해 한 두 걸음 옮기더니…

《오오 쩸쓰가 아닌가? …음?》

《아니 이거 로버트 사장!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참 몇년만입니까?》

《허허허 쩸쓰는 아직 이 거리에 있었나?》

《네 있어두 아주 잘 있었죠》

《그거 다행이군 자! 내 방에 들어 가면서 이야길 하세 그래 인젠 좀 출세를 했나?》

《당신께서 돌봐 주시지 않은데 출세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허 그래두 잘 있다면서…》

두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다.

《그야 아직 제손을 놀려 벌어 먹으니 다행이랄 수 밖에요》

《암 아모리 늙었어두 우리 아메리카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참 쩸쓰의 나이가 몇살이지?》

《로버트 사장! 우리야 동갑이 아니유 그리구 40년 전에야 아주 친했다구두 말할 수 있는 전우가 아니유》

《그거야 나두 알지 그 40 년 전에 새로 생긴 쏘베트 로씨야를 쳐 부시러 나갔던 《선각자》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까》

《자랑이라니? 아니 그때 그 붉은 군대에게 불벼락을 맞고 두엄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것도 자랑이유 그리고 또…》

로버트 사장의 그 뚱뚱한 몸은 갑재기 달아 올라 어깨를 들먹거리다가…

《에헴 에헴!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야 음! 쩸쓰!》

《글쎄 나두 죽을번한게 사실이지만 당신이야 그때 나보다 앞서 도망치지 않었수!》

《쩸쓰!》하고 하도 크게 입을 벌리며 안면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에 코에 부쳤던 안경이 하마트면 떨어져 깨어질번 하였다. 그러나 로버트 사장은 그것도 개의치 않고…

《쩸쓰! 자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 봐! 내가 언제 도망 쳤는가!》

《로버트 사장! 너머 흥분하지 마십시유 지나간 이야길 할적에야 지난날을 회상해 봐야 할게 아니유》

《원 저렇게 머리가 둔하니…쩸쓰 자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두 그따위 거짓말은 하지 말란 말야》

《그건 내가 당신에게 하구싶었던 말이유 당신이 나를 협박할적엔 이렇게 말해야지유 〈바른 말을 했다간 자네 목숨이 위태롭다〉 하구…》

《아니 이건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원 천만에요 나야 당신이 부르길래 무슨 좋은 소식이래두 들려 주실줄 알았더니…》

《그래 나한테 뭘 요구할라는 거야?》

《아니올시다.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약간 안다고 해서 그결루 당신을 괴롭히진 않을테니 안심하십시요.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은 쏘련에서 탄도탄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듣고 백악관 외교 정책에 무슨 변동이나 일어나지 않은가 해서…? 당신은 하원 의원이니까 그 눈치를 아시겠죠》

《무슨 변동…? 우리 아메리카의 외교 정책은 시종 일관이야》

《그럼 여전히 전쟁을…》

《누가 그따위 소릴하랬어》

《그건 들어 보나 마나 하단 말이죠 하나님 맙시사》

《뭐라구?》

《당신두 아시다싶이 제 1차 세계 대전 때엔 로씨야에서 혁명 이 일어 났구 제 2차 세계 대전 후엔 구라파와 아세아의 절반 이상에서 사회주의가 승리 했구…》

《쩸쓰! 쩸쓰! 자네는…》

《가만 계시유 나는 당신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말이웨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저쪽의 세력은 늘고 이쪽은 줄어드는 데…》

《무엇이 왜 줄어든단 말야 음?…》

《그야 당신들 자본가는 무기를 팔아서 배를 더욱 불리울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기조차 싫어 하죠》

《닥쳐! 닥치란 말야!》뚱뚱보 늙은이는 기어코 일어섰다. 쩸쓰도 일어서면서…

《참말 당신의 앞날을 생각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수다. 당신은 40년 전 전쟁 때엔 도망칠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뚱뚱보 늙은이는 주먹을 흔들며 부르짖었다.

《누가 도망쳐!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단 말야》

《40년 전에야 이길 자신이 있다고 믿었죠. 그때의 쏘련은 탄생하여 한살도 못된 갓난애기였으니까 그러나 도리혀 우리가 못 견디고 도망쳤지유 그런데 40년 동안 무섭게 발전한 오늘의 쏘련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긴단말유 이번엔 두엄통 보다 더한데 빠질게웨다.》

뚱뚱보 늙은이는 화가 골수에까지 치밀어서 남이 알아 듣지도 못할 소리를 중얼거리며 쩸쓰에게로 달려 들었다. 쩸쓰는 설마 자기에게 손이야 대려니 하고 첬다가 사태가 위급하자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와 같은 순간에 뚱뚱보 늙은이는 허우적거리며 쓸어졌다. 그리고 안경알이 깨여지면서 그 큰 코가죽을 베껴버렸다. 하여 그 모양은 그가 40년 전에 허우적거리던 것 보다 더 흉했다.

쾌속도로 탄탄대로

—길은 열렸습니다

송 용남 그림

험로 끝에 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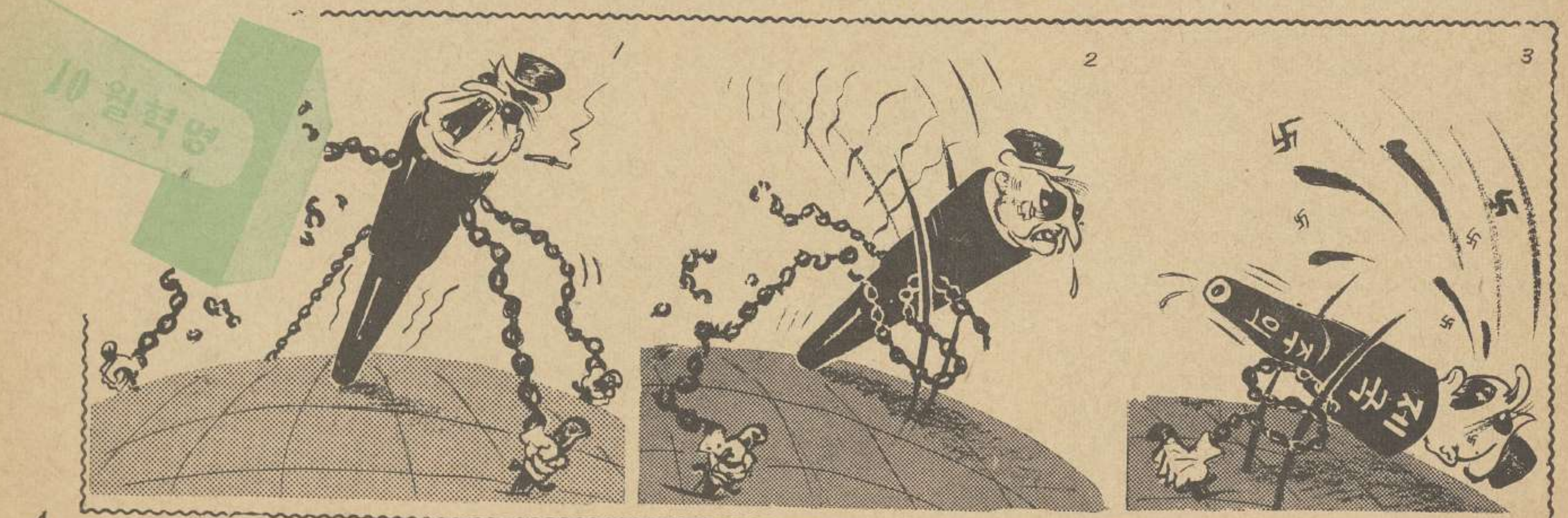
미제—어디로 가면 좋을까?
히틀러—조금 가면 당신 자리가 있을 거웨다

송 용남 그림

국제주의 렬사의 동상 앞에서

조 명식 그림

제국주의 지반을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백 인균 그림

부러운 신세

유 항 림

미 공군 중장 버넬이 자기가 고문으로 되여 있는 항공기 회사의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재로 그의 조카 벤이 뛰여 들었다.

《실례했습니다. 손님이 계시구만요.》

《벤이냐? 무슨 일이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잠간 물어보구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었는데 손님이 계시구만요.》

《사장 어른은 너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냐? 간단한 말이거든 어서 말해 보려무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어 다른 게 아니라 쏘련에서 시험에 성공했다는 대륙간 탄도탄은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너두 그 말을 믿느냐?》

《그러기에 물어보러 왔습니다. 레다 (전파 탐지기)장치로 수천 키로 밖에서 벌써 탄도탄이 접근한다는 것을 요행히 알아낸다 하드래도 손발을 쓸 겨를이 없이 눈깜박할 사이에 꽝 하고 와서 떨어지니까 어찌는 수가 없다고들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어서 네 소견이나 말해 보려무나.》

《그러니까 결국은 쏘련 사람들이 주장하고 권고하는대로 군비를 축소하고 원자무기 수소무기를 금지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더우기 우리는 중거리 유도탄 시험에도 실패를 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쏘련을 단박에 없애 치운다고 위협 공갈해 왔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질 않습니까?》

《그래 너도 쏘련 사람들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말이냐?》

《아니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군비 경쟁을 그만두는 날엔 우리 군수 공장들이 문을 닫는 날이고. 그러면 우선 나 자신이 수입이 특별한 지금의 일'자리를 잃겠으니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미국에선 군수 공장들이 문을 닫는 것과 함께 실업자 홍수가 나는 반면에,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군비 부담이 없어지니까 더욱 살기 좋아지겠으니 그게 걱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까지 모두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게 되겠으니까요.》

《그래 너도 사회주의가 좋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군수 회사 주'권에 대해서 리윤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을 방어할 길이 있는가고 허둥지둥 달려 왔습니다.》

《얘야 그건 념려 말아라, 여기 사장 어른도 계시지만 탄도탄을 막을 방법은 다 강구되여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안심시켜라.》

그리하여 공군 중장과 항공기 회사 사장은 청년을 가까스로 안심시켜 돌려 보냈다. 청년이 나가자 항공기 회사 사장이 한숨을 내쉬였다.

《부럽군! 그 청년의 신세가……》

《그렇지 늙고 보면 누구나 청춘이 부러운 법이거든!》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청년은 우리 말을 곧이 듣고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사태를 더 잘 아는만큼 쏘련의 그 탄도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유지하는 길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옳아! 벤에겐 그의 눈을 감겨 주어 고요히 잠들게 해 주는 우리들의 친절이 있지만, 하나님도 인제는 우리들 자신을 안심시킬 수는 없을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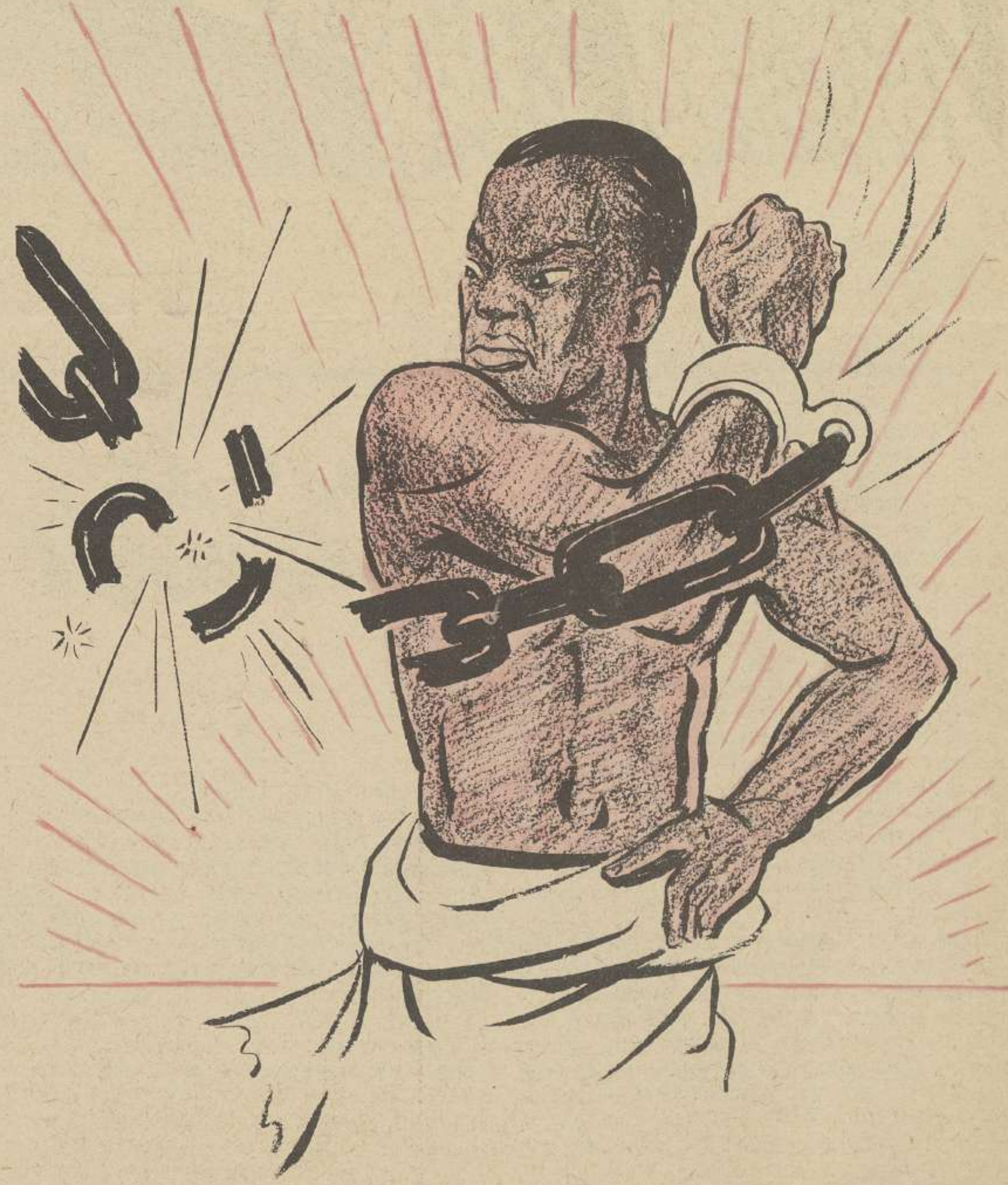
《그러니까 딱하단 말이네. 삐 29 같은 폭격기는 조선 전쟁에서 벌써 미래의 전쟁에는 쓸모가 없는 폐물이란게 증명되였으니 말할 것도 없고, 삐 36이나 삐 52같은 최신 무기들도 인제는 파쇠로 밖에는 쓸 모가 없지 않나》

《그건 차라리 나은 편이지 삐 52 같은 건 그래도 파쇠로 쓰면 남비라도 만들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우리 군사 기지에 투입한 수십 억 딸라는 남비도 될 수 없겠으니까……》

《그런 끔찍한 사태는 생각만 하기도 무섭네. 외국 기지에 처 넣은 막대한 딸라가 수포로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네. 아무러나 그건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니까 손해랄 거야 없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꿈을 걸고 있던 외국 기지들을 걷어 치우는 날엔 우리는 넋 잃은 사람들이 될게 아니겠는가?!》

10월의 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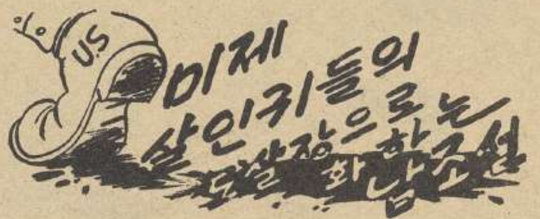
식민지 해방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허 능택 그림

갈은 땅이 건만

조 명식 그림



미제 살인귀들의 살인장으로 화한 남조선

류 계 환

9월 23일 이른 새벽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거리 한 복판에서 있은 일이였다.

한명의 미군놈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최 은준이란 조선 청년에게 돌연 달려들어 무턱대고 단도로 그의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때 그 옆에는 이 뜻하지 않은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또 하나의 조선 청년이 있었는데 미군놈은 그를 발견하자 또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칼부림을 하고 황급히 종적을 감추었다.

서울 장안 한 복판에서 무고한 조선 청년에게 흉기를 휘둘러 댄 이 미군놈이 제정신이 멀쩡한 자 라는 것은 이놈이 칼부림을 하고 나서 죄행을 감추기 위하여 황급히 도망친 사실 하나만 보아도 넉넉히 알수 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인천, 부산, 영등포, 군산에서도 이와 류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에서는 미군놈들이 두명의 조선 소년과 두명의 조선 녀성에게 아무 리유도 없이 총질을 하여 그들에게 모두 중상을 입혔으며 인천에서는 저수지에서 수영하고 있던 조선 청년을 사살하였다.

미국 살인귀들은 지어 철 없는 유아에게까지도 함부로 총탄을 퍼붓고 있다.

거리를 뻗어나간 송유관 우에 앉아서 무심하게 놀고 있던 김 영호란 세살난 어린이를 휘발유 도적놈이라고 무참히도 학살한 인천 미군 송유관 경비병 로날드 이 파세트의 만행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다.

《닥치는대로 죽여라 설사 그대들 앞에 나타난 것이 어린이나 노인이라 할찌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그대들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한국인을 죽임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조선 전쟁기간 미국 지휘관들이 그들의 전사들에게 내린 명령의 한 구절이다.

이 미국 지휘관의 명령은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이른바 《정치 철학》의 본질—이리와같은 흉악성과 여우같은 교활성을 가진 미국식 《문명》의 진짜배기 속판을 그대로 들어 내놓고 있다.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천대 멸시하였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 기어든 후에는 조선 인민의 모든 애국적 운동을 총칼로 탄압하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변시킨 미제 침략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야수적 만행을 다하였으며 정전 이후에는 계속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반위주격으로 네활개를 치며 쏘다니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고 불을 지르며 물건들을 강탈해 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미군 제 7 항만사령부 소속 미국 병사놈이 작업을 태만하였다고 조선인 로동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미군 제 72헌병대 소속의 한 미국 헌병놈이 조선인 로동자와 씨름을 하고 씨름에서 졌다고 그의 심장에 총탄을 퍼부었다. 얼마나 흉악한 살인마들인가.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국 식인종들의 야수적 만행의 한두개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놈들의 마수가 뻗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을 물론하고 이러한 참상은 례사로 벌어지고 있다

백주에 거리 한 복판에서 미국놈들에게 아들 딸을 빼앗긴 부모들이 자기 안해와 가족을 학살 당한 남편과 친척들이 피에 젖은 시체를 안고 치미는 분노를 미국놈들을 저주하면서 야수보다도 더 잔인한 이 살인범들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살인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활개치고 쏘다니면서 살륙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임신 10개월이된 조선 부인을 릉욕하려다가 응하지 않는다하여 칼로 배를 찔러 즉사케 한 양주군 백석면 미군 제 7사단 소속 미군 병사놈들은 얼마 후에는 다시 물건을 사주겠다고 돈을 가져오라고 조선 소년을 꾀어다가 산중으로 끌고 가서 살해한 후 현금을 략탈 도주하였다.

진정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백정놈들이며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짐승들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20세기의 두발 가진 야수들인 미군놈들이 주둔 또는 통과하는 지역들에서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마을과 거리를 다닐 수 없으며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조차 없다.

이것이 입으로 《원조》와 《자선》을 지꺼리는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정체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리 승만은 살인자들의 악랄한 만행을 적극 비호하면서 이러한 범죄 행동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어 이 늙은 주구는 미국 살인자들을 《문명인》이니 《구세주》니 하면서 미국놈들에 대하여 조선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는 《례의 준칙》까지 발표하고 이를 위반하는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인민들을 위협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후안 무치하고 매국적인 소행인가 그러나 미국놈들은 남조선에서 언제까지나 주인 행세는 못할 것인바 그것은 인민들이 자기들의 단결된 력량으로 미군놈들을 반드시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립도 선매

신 홍 순

벼 이삭이 채 익기도 전에 채귀(債鬼)들은 벌써 농촌으로 몰려 든다.

요즘 남조선 농촌에는 이 빚쟁이들의 등살에 못이겨 벼를 논'바닥에 세워 둔채 헐값으로 팔아 넘기는 립도선매(立稻先賣)가 성행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선매) 란 비단 벼 뿐만이 아니라 눈속에 파묻친 보리를 파는 백전(白田)선매를 비롯하여 봄 파종 직후에는 흑전(黑田)선매 여름에 곡식이 푸를 때는 청전(靑田)선매——이 외에도 밀보리를 세워 놓고 파는 립맥(立麥)선매며 심지어 최근에는 엽연초까지 선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혹한 살인적인 고리대 행위는 립도 선매다.

이른 봄부터 절량이 된 농민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 못해 식량이며 농자금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비싼 리자를 붙여 주는 장리며 고지(雇只)색거리, 곱배기 등 벼라별 종류의 변돈을 쓴다.

빚쟁이들은 벼이삭이 패기가 무섭게 제각기 먼저 받으려고 혈안이 돼서 농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

충청도 안'골 사는 박 치달 농민의 집에는 벌써 보름전부터 대구에서 드나들던 심가란 자가 오늘은 결말을 짓자는 듯이 립도선매에 대한 계약서를 내여 놓고 졸라 댄다.

《얼굴이 통통 부어 굶어 죽게 됐을 때 고맙게 돈을 돌려 줬으면 고맙게 갚아얄게 아뇨?》

《구장한테 의론허구서 도장을 찍어도 찍어야 돼겠소》

《구장은 무슨 구장? 내 것 가지고 나 빚 갚는데 구장이 무슨 상관 있소? 나 원 참》

《그래도 립도선매를 해선 야단 날테니 그런줄 알라고 하던 걸요?》

《왜 왕청 같은 구장한테 밀면서 이러우? 아 그럼 남의 돈을 떼 먹을 배'장이요? 어서 잔소리 말구 도장을 찍으시우! 2백환 각수나 리자를 탕감해 줬는데두 그런 의리를 모른단 말요?》

이때 마침 구장이 왔다. 구장은 방안을 휘——둘러 보더니 대뜸 심가를 을러맨다.

《여보! 내가 엊그제부터 국가 구실 돈 다 물기 전엔 이집에 손 대지 말라구 허잖았소?》

《아니 그럼 남의 돈은 룡 올리란 말요?》

《그야 누가 알 것 있소? 지난 장마통에 다 결단 나구 겨우 서너 마지기 밖에 안 남았으니 《농지상환곡》이며 《토지소득세》 《비료대》《수세》 같은 걸 뭘루 다 문단 말요? 더구나 이 집은 하곡 수납곡두 못다 냈게 여러 가마니구 이것 저것 다 물재도 회계가 없는데 개인 빚이 다 뭐 말라 죽은게요? 흐 참!》

《여보! 구장이면 동네 일이나 볼게지 당신이 항상 뭐게 남 빚 갚는 자리에 와서 좌지왈 우지왈 야단이요? 야단이》

《뭐라구? 이건 상부 지시란 말야! 국가 세곡 다 받기 전엔 하나도 못 다치기루 됐어! 계약서구 개 나발이구 이 동네서 싹 없어지란 말야!》

《아니 왜 이리 큰 소리야? 이건 머 치안국장이나 된듯 싶은가? 들자니까 당신두 자유당원이라지?》

《건 왜 물어?》

《난 자유당 도 당 위원장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왔단 말야!》

《도 당 위원장!》

이 동네 퍼뜨려 놓은 액수만 해두 수백 만환이야! 그분의 자근 마나님의 돈까지 합허면……구장 알겠어?》

《에 대춘 짐작은 허구……》

구장은 말 끝을 맺지 못하고 머리만 긁는다.

《령감! 자 어서 도장을 찍으시오!》 심가는 계약서 용지를 내여 민다.

《아니 구장어룬 어떡헐까요?》

박 치달 농민은 구장을 쳐다 보았다.

구장은 대답 대신 자기 호주머니에서 인주통을 내 놓는다.

심가는 립도선매 계약서를 받아 가방에 넣고 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구장! 이 집 논'배미의 벼를 벨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잘 간범해 주쇼!》

《네 네》

구장은 연신 굽실거렸다.

박 치달 농민은 일년내 뼈'심 들여 가꾼 땀이 밴 논'배미를 물그럼이 내다 보며

《망할 놈의 세상!》 혼자'말을 하면서 한숨을쉬였다.

어찌 박 로인 뿐이랴? 밀양 김해 벌에도 금제 만경벌에도 빚 달련에 우는 농민들의 원한은 배미마다 서리였다.

미제에 대한 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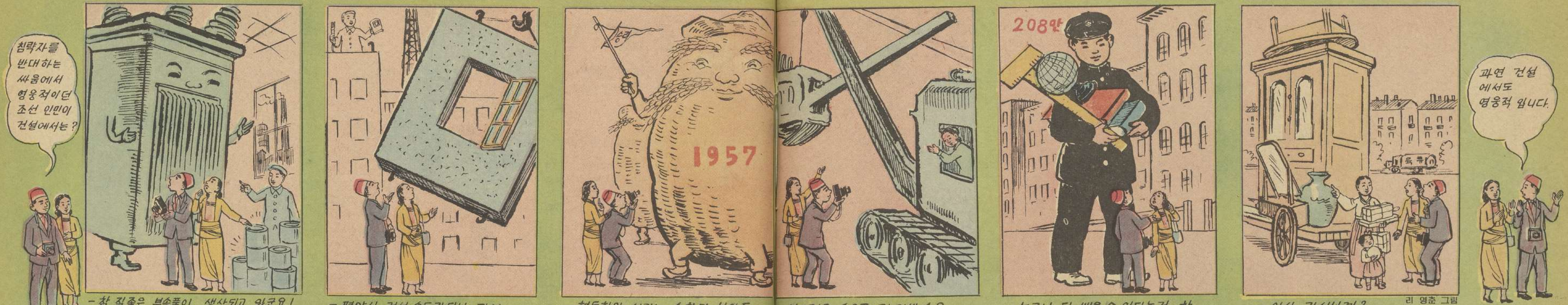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농 민—살'길을 찾아서 도시로 왔소
로동자—나는 농촌으로 갈려던 길이요
농 민—미국놈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로군

메'돼지 발고랑 뒤듯이

—하곡 수집에서 보인 솜씨를 이번에도 보이란 말이야

백 인균 그림



—참 질좋은 부속품이 생산되고 있군요!
—우리나라에는 저런 큰 기계도 생산되고 있답니다.

—평양식 건설 속도라더니 과연 빠르군.

—협동화의 성과는 수확만 보아도 알 수 있군.

—부드러운 손으로 저 거센 손을 움지기는군.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는건 참 부러운 일이야.

—이사 가십니까?
—아뇨 사 갑니다.

리 영춘 그림

황남도 류통 사업에서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는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식료품 공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특히 강조되였다.

이 결정을 받들고 황해남도 상업 일'군들도 도내 실정에 맞게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해주시 상업부에서도 다양한 식료품을 근로자들에게 보장할 목표를 세웠다. 처음에는 왔짝 기세를 올려 한때에는 꽤 많은 종류의 상품이 매매에 오르게되자 시민들은 기뻐하면서 식료품 공급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희망을 걸었다.

그렇건만 요사이에 와서는 그당시에 비해 30%의 품종으로 다시 줄어들고 말았다. 그 원인을 캐보며는 그럴듯한 리유가 있다. 요사이 매매에 오를 수 있는 상품은 대체로 일정한 《규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많은사람들이 《우리 도에서는 딴딴한 과자 밖에는 먹을 수 없어》하고 말하는 것으로도 짐작되지만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는 이 일정한 《규정》에는 수요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적어도 보관 기일이 한달 이상 보장되여야 하며 운반하기 쉬워야 하며 생산하기 쉽고 보관하기 쉬운 것이래야만 매매에 오르게 되였다.

그래서 계약 체결이 돼 있는 생산 협동 조합이나 지방 산업 공장에서 만든 과자나 알사탕도 이 《규정》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아예 인수부터 하지않는다. 얼마 전에 생산 협동 조합에서 만든 3톤의 생과자를 썩이고 지방 산업 공장에서 만든 2톤의 알사탕을 녹여버린 사실도 이 《규정》에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은률 광산 직장 상점에서 식료품을 찾아 내기에는 시 힘이 든다. 그래서 한 로동자한테 물어보았더니 료품도 판다고 한다. 겨우 발견한 것이 술이였다.

〈광산 로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술이랍 하고 점장 동무는 으젓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 렇게 상부 배정품만 앉아 기다리는 〈십수 없는〉 동무도 있다. 이처럼 식료품이라고는 "술" 한가지만 취 놓으신 점장 동무도 사람이 "술"만 마시고 살 는다는 건 다 아실 터인데—

또 재령 광산 직장 상점에서 〈동무네 상점에 식료품은 판매하지 않소?〉하고 묻는 말에 그 상점 은 무릎을 탁 치며 〈식료품이요? 어제까지 콩나물과 부를 팔았는데…참 유감스럽습니다. 딱 다 팔린 다음에 오셔서——〉 이렇듯 식료품이라면 겨우 콩나물, 두부로만 생각하시는 분네들은 인민들에게 다양한 식료품을 공급한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부족한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에서 수산 사업을 일층 강화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되였으나 강령에서는 운반 조직도 저장, 판매 조직도 잘 하지 않는 탓으로 조기 잡이가 한창일 때 미처 손쓸 사이도 없어 한짐 져 가고 한짐 져 내랄 형편이였다. 그러나 지금 일부 로동자 지구 상점들에서는 조기를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전국 열성자 회의 결정을 받들고 황해남도에서는 하부에 이르기까지 각급 열성자 회의 에서 심중이 토의했건만 그 결정이 잘 실행되지 않는 것은 결정된 문제는 회의에서나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끝이려는지…이처럼 일부 류통 기관들에서는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을 외곡하여 집행한 반당 종파분자 윤 공흠의 해독적 사업의 악결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길래 식료품을 자체 수매한다든가 가공 판매를 해서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풍부하게 보장한다는 문제는 념두에 없고 배정품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일'군들은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김 상 애

로동자 지구 어느 상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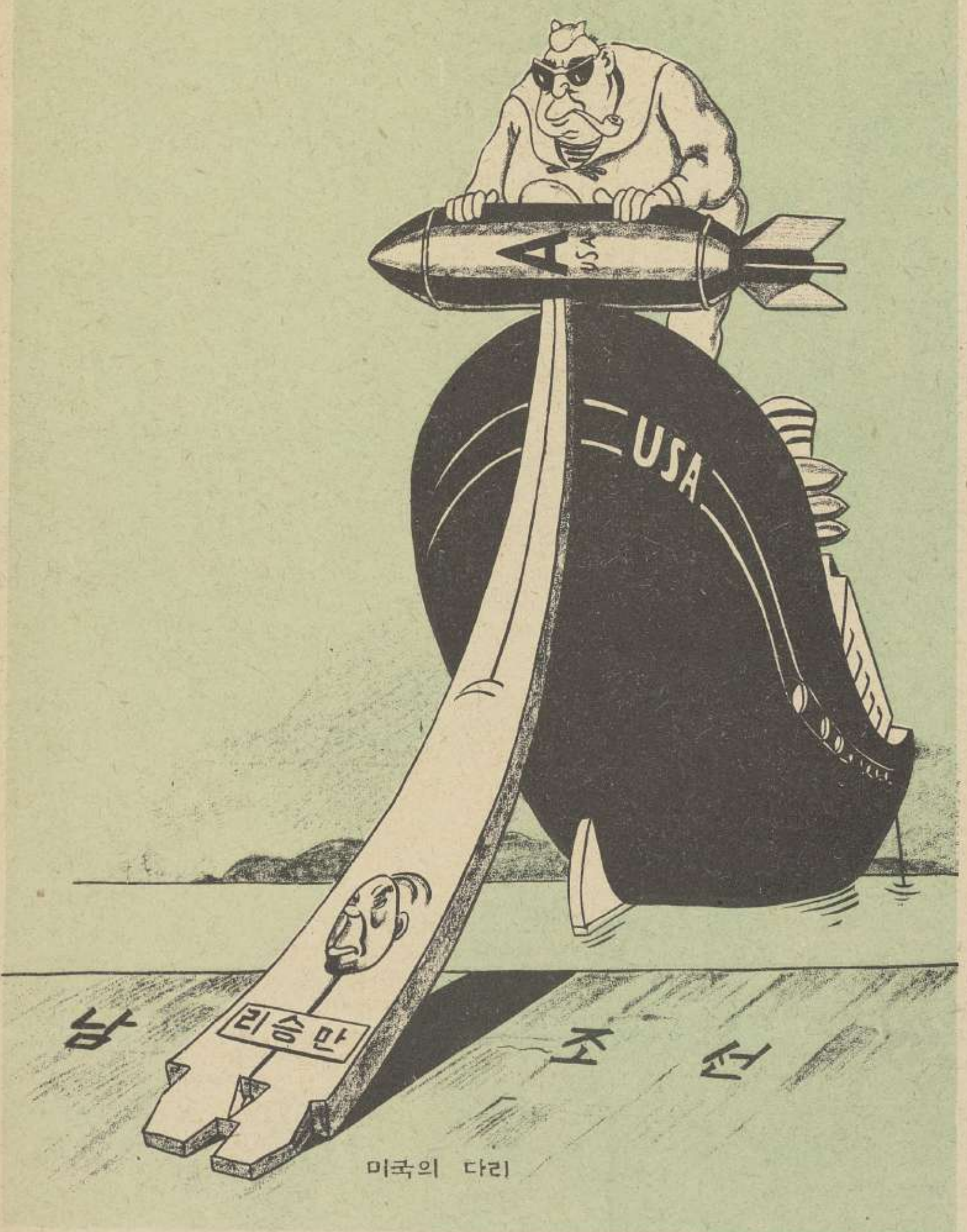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상업부문 일부 지도 일군들은 각종 부당한 구실 밑에 취급하기 쉽고 가격이 높은 공업 상품 판매에만 치중하면서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아직도 소홀히 하고 있다

hosteni — 호스제니

알바니아 풍자 만화 잡지《호스제니》
1957, 15호에서 전재

미국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남조선에 원자 무기를 반입하고 있다.



미국의 다리

식민주의자에게 주는 경고

식민주의자— 이것이 무섭지 않은가?
씨 리 아— 그 상처에서 아직 교훈을 찾지 못하는가?

송 용남 그림

소란스러운 춤

일본의 화가 나까지마 고―지는 일본 신문《닛쭈 로오도》에 발표된 자기의 그림을《소란스러운 춤》이라고 불렀다. 일본 령토는 쇠 가시줄로 둘러싸였으며 판자쪽에는《일본인은 출입 엄금!》이라는 글이 나붙어 있다. 그리고 쇠가시 줄 안에서는 원자탄과 유도탄이 소란한 춤을 추며 날뛴다. 이 만화에서 화가는 현 일본 생활의 가장 비참한 특수성들 중의 하나를 표현 했다

전쟁이 끝난지 12년이 경과한 지금도 아직까지 일본은 미국의 군사 기지망으로 뒤여 있다. 미 점령군은 종체로 군사 기지들과 작별하려 하지 않는다. 더욱 더 그들은 완미하게 군사 기지의 확장에 광분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군 사령부는 오끼나와 섬의 7500개소의 농토를 강제 징발할 것을 선언했다. 《아사히》 신문은 미 당국에 의한 땅의 계속적인 징발을 론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에서 가장 주밀한 인구 밀도를 가진 작은 섬에서 주민의 온갖 생활은 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는 모조리 징발된다고―미국의 행동에 대하여《마이니찌》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류―큐 렬도 (오끼나와 섬이 들어 있는 렬도)를 영구히 자기 관할하에 넣으려고 하는 인상을 준다.》라고

일본을 자기의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는 일본인들에게 각별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이 목적으로 원자 무기로 장비된 부대를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인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원자 폭발의 무서움을 지닌 우리 인민은 이와 비슷한 어떤 비극의 반복도 원치 않는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만 한다.》

일본에 미국 군사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본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미국 군대들의 란폭한 적대 행위들은 전반적인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신문 <시카고데일리 뉴―쓰>의 기자가 말한 바와도 같이 일본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벗들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무원들의 성명에 놀랄 필요가 있는가?

《그 지방 주민들로부터 받는 불친절성은 많은 미국 병사들과 장교들을 불안하게 하며 어떨떨하게 한다.》 《뉴―욕 타임쓰》지 동경 특파원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세아 지역 주민의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썼으며 계속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자기가 환영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인은 극히 드물 것이다.》라고

일본은 계속 미국 군사 기지의 쇠 가시줄로 둘러 싸여 있다.

유•피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미국 무력들이 일본의 중요한 섬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일본 사회 계층이 앞으로 얼마나한 시간을 용허할려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고

일본 인민의 심정에 의하여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멀지 않았다! 고

쏘련 "문학 신문"에서

위험한 대화

—당신은 인제 그 로동자에게 무어라고 했습니까?
—일하라고 명령했지요.
—당신은 그한테 일을 시키기 위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돈을 주니까요.
—얼마씩? —하루에 세 폰드씩.
—그러면 그한테 주는 돈은 어데서 납니까?
—제품들을 팔지요.
—그건 누가 만듭니까? —그가 만들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어치쯤 만듭니까?
—20폰드쯤이지요.
—그럼 그에게는 일을 시키고 당신은 여기서 한가로히 빈둥거리기 위하여 당신이 그에게 지불해야 할 17폰드를 당신이 차지합니다그려!
—암, 그렇지요, 기계는 나의 것이니까요!
—정말이요? 그러면 그 기계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제품들을 팔아서 샀지요.
—제품들은 누가 만들었기에?
—가만 있소! 그가 들겠수다.

오쓰트라리아 신문에서
(한 통신 번역)

권위 있는 방망이

김 문 규

그중 격분한 것은 역시 부위원장 정 룡수 동무였다. 그는 목에 피'대를 도꾸면서 마구 우겨됐다.

《글쎄 내가 욕을 먹었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위신을 봐야 하지 않겠소 위신을! 도대체 관리 위원회 지도 일'군들의 위신이 뭐란말이요. 이거야 위신이 땅에 떨어져두 분수가 있지 도대체 그럴 수가 어데 있단 말이요.

물론 내가 숫한 사람들 속에서 강 선식 조합원을 개욕하듯 한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또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이요, 글쎄 관리 위원회 지도 일'군이 조합원더러 운반해 온 《액비》가 물같이 묽다고 좀 욕을 하는 것쯤 보통 례상사지, 글쎄 그런데 그놈의 두상이 내게 대들구 바루 부위원장인 나에게 욕을 해! 암 고약하구말구, 용서할 수 없수다. 모두 용서하자구 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수다.

도대체 나는 해설이니 설복이니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처사가 마음에 안든단 말이요. 지도 일'군이 든든한 방맹이를 들고 있지 않으니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조합내 제도와 규률은 말할 나위 없이 되지 않았소, 우리 지도 일'군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든든한 방망이를 듭시다. 암 들어야만 합니다》

회의에 모인 관리 위원들은 정 룡수 부위원장이 하도 우겨대는 바람에 그럴사한 생각도 들었다.

시시한 일이니 하던, 시초 생각은 자래목처럼 쭐어들어 가고 지도 일'군의 위신 문제로 되고 보니 문제는 한갖 시시한 것이 아니라 위신 있는《정치 조직》적 문제로 되였다.

관리 위원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킬 결의 초안을 미리 작성했고 장본인인 강 선식 조합원과 사이가 좋지 못한 몇몇 조합원들을 불러다가 미리 토론을 조직했다.

강남군 원암구 아차도 농업 협동 조합에서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강 선식 조합원이《비행》을 폭로 규탄하는 장황한 보고가 격조 높이 선동적으로 진술되였다.

《그는 일상적으로 상부를 상부로 보지 않으며…이 문제는 비단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합에 질서와 규률을 파괴한 엄중한 문제며, 그것은 곧 조합을 깔보는 것이며》 하여 자 이제두 자 이제두 하는격으로 같은 소리가 되푸리 또 되푸리 되였다. 미리 준비된 토론자들이 연단에 나섰다. 그들은 강 선식 조합원에게는 비판만 줄 것이 아니라 책벌을 줘야 하며 책벌로서는 로력 일수를 깎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서 말했다.

정 룡수 부위원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이것은 제도와 규률에 대한 문제우다. 제도와 규률이 확립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책벌 방법이 필요하웨다. 우선 이번일에 시험적으로 로력 일수를 깍는 책벌을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해서 강 선식 조합원은 대수럽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여름내 땀 흘리면서 번 로력 일수 중에서 15점이나 삭감 당하는 봉변을 당하여 똥방석에 물러앉은 격이 되었다.

시험적으로 적용한 책벌 방법은 그 이후부터 여기 지도 일'군들의 든든한 방망이로 되였다.

민청 위원장이 자기 위신도 좀 봐줘야하지 않겠는가 불평을 말하였다. 생각해 보니 민청 위원장도 조합내에서 어엿한 지도 일'군이다. 위신을 봐주어야지, 그래서 민청 회의에 열성적으로 참가치 않는 김 호순 김 사복 김 지하 조합원들의 로력 일수를 5점식 깎았다.

아들과 며누리를 조합원 총회에 잘 참가시키지 않는 김 우만 조합원이 괘씸하였다. 그의 로력 일수를 10점 깎기로하였다. 이렇게해서 지도 일'군들의 방망이는 《위신》을 위하여 힘껏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권위 있는 방망이에 대하여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권위 있는 방망이는 한갖 관리 위원회 지도 일'군들만을 위해서 활동했지만 조합원 전체의 리익을 위해서 활용 할 민주 방망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였다.

조합원들에게 호령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공연히 남의 로력 점수를 깎아내리는 관료주의 자들에 대해서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민주방망이의 권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 중에는 과수 재배 면적 확장을 위한 계획만 세워 놓고 구체적인 사업 조직을 하지 않는 안일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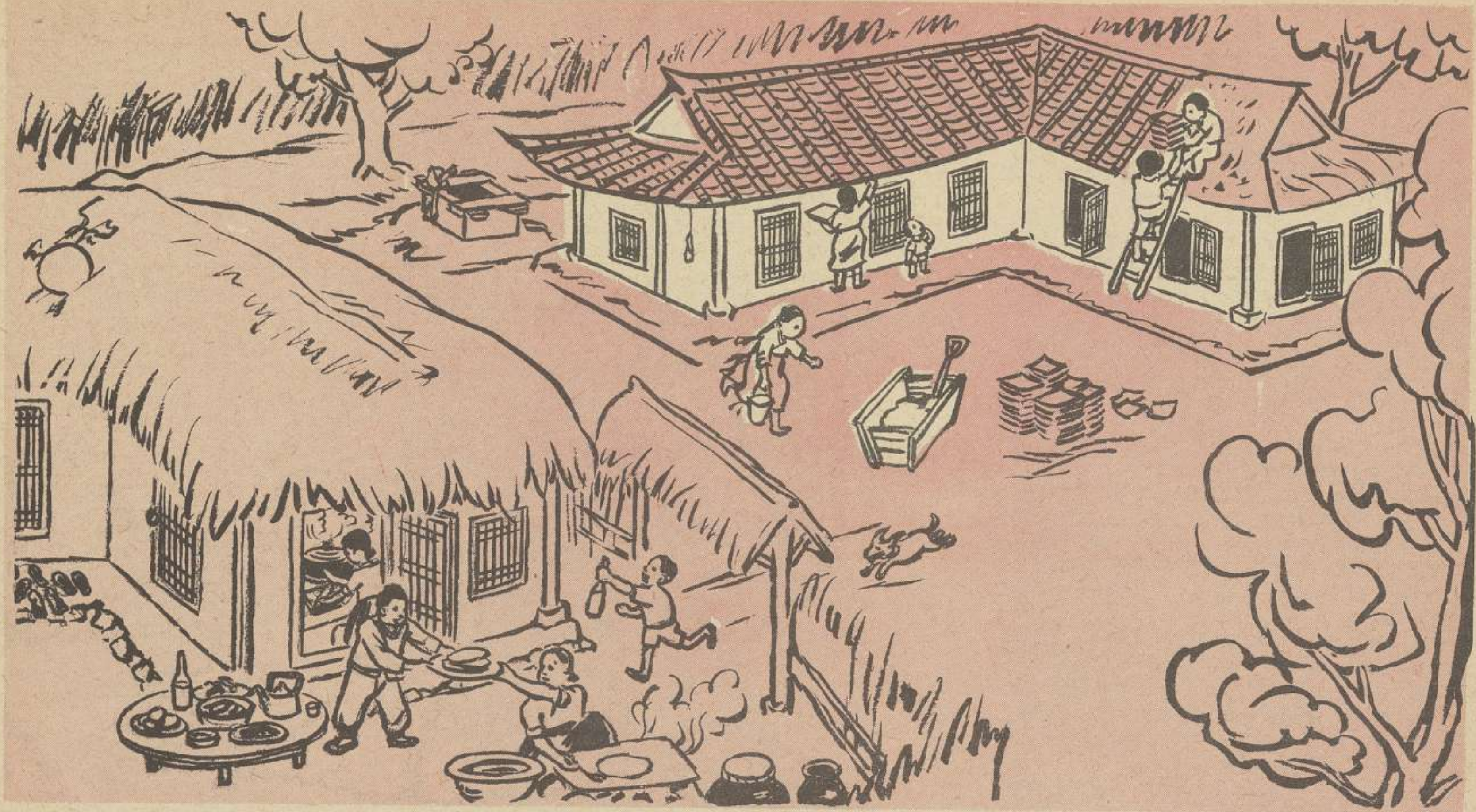
씨암탉

김 광 현

갑동—(나온다)
을순—(맞은편에서 나오다가) 벌써 돌아 오우?
갑동—아니 인제야 장엘 가?
을순—네 저……그만 닭에만 정신이 팔려서……
갑동—뭐? 닭……?
을순—네 친정에서 씨암탉을 두 마리나 보내 주었어요?
갑동—거 너머 신세를 져서……
을순—이다음에 갚읍시다레 뭐……그럼 난 고등어 사려 가겠어요. (나가련다)
갑동—아 어보! 고등언 그만두구 술 한 병만 받아오우.
을순—네? 술이요?
갑동—안주가 좋으니 한 잔 해야겠어.
을순—아니 무슨 안주가 있어요?
갑동—이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엽대 닭 소리를 하더니……
을순—당신은 그게 탈이에요. 있는 걸 댕겨 먹을 줄 모르구 늘상 술타령이니 그러구서야 어떻게 증산이며 절약이란 말을 입밖에 내겠소?
갑동—아니 이건 누구한테 설교야 음 잔소리 말구 닭이나 잡아.
을순—그 닭은 알나 받아 먹어야 해요
갑동—뭐? 알?
을순—그렇죠 인제부턴 날마다 계란이 밥상에 오르게 된다우.
갑동—그래두 그건 닭 고기만 못해.
을순—아니예요 계란이 더 좋아요.
갑동—닭'고기가 좋대두……
을순—정 그렇다면 저 닭이 새끼나 한배 친 다음에.
갑동—좁다란 마당에서 닭은 어떻게 쳐?
을순—옆집에서두 치는데 우리라구 못 치겠수
갑동—그만둬!
을순—그리구 밤낮 이 집에서만 살겠나요 커다란 집으로 이사두 갈텐데……
갑동—그건 장차 일이구
을순—장차가 뭐야요 지금 저기 저렇게 문화 주택이 일어서는데……
갑동—그걸 지금이야 아나! 세월이 이렇게 좋으니 어서 도리탕으로 한 잔 마시게 해 달란 말야.
을순—글쎄 그 닭은 알을 받아야해요
갑동—글쎄 귀찮게 그럴 것 없이 당장 통채로 잡아 도리탕을 하래두……
병규—(신문을 보며 나오다가 갑동의 말을 엿듣고 씽긋 웃으며) 여보게! 양고기 사태가 났다데
갑동—뭐 양고기 사태? (신문을 보려고 한다)
병규—이보게!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났을 상 싶은가! 여보게 이사람! (어깨를 툭 친다)
갑동—(어리둥절해서) 뭐?
병규—내가 생각하니 자네 같은 하루살이 심뽀라면 봉고 인민들이 보내 준 그 많은 양두 귀찮게 기를 것 없이 통채루 잡아 먹겠달 게 아니냐 말야
갑동—아니! 이 동무가 누굴 놀리는거야
정희—(바삐 나오며) 어보! 우리 닭이 병아릴 깠어요
병규—(좋아서) 아 그래
정희—그런데 참 영순 엄마두 닭을 기른댔으니 우리 병아리 경쟁을 한번해 봅시다.
을순—병아리 경쟁이라니요?
정희—병아리를 기르면서 우리 살림을 작구 늘쿠는 경쟁 말예요
을순—그렇지만……(갑동을 바라본다)
병규—그거 참 좋습니다. 장 동무와 나는 공장에서 증산 경쟁을 하구 집에선 생활 경쟁을 하구……
갑동—흥! 경쟁만 호소하면 제일인가
병규—그렇지, 문제는 조고마한 일이래두 실천을 해야지.
정희—어보 어서 가서 병아릴 좀 봐요 얼마나 귀여운지…
병규—그래 음 그래 (갑동을 보고 씽긋 웃으며 정희와 함께 나간다)
갑동—어보! 우리 닭은 어데 있어?
을순—아이 참 잡지 말아요 네 어보!
갑동—잡다니! 경쟁에 이겨야 한단말이야.
을순—네! 그래요?……저 뒤'곁에……
갑동—알았어, 당신은 어서 가서 닭아 모이를 사 오우 음 빨리 갔다 오우 (나간다)
을순—아이 고마워라! 좋은 생선을 사와야지……(방긋 방긋 웃으며 나간다)

일부 지방에서는 농촌 문화 건설에 대한 계획적 지도 방조가 부족한 관계로 증대된 농민들의 수입이 헛되히 랑비되는 현상이 있다

흥성 풍성한 분배로



차돌이네는 집을 꾸리기에 바쁜데
칠성이네는 술'상을 차리기에 바쁘다

송 용남 그림

경각성이 무딘 구석을 찾아서

못 본척한 결과에

늦저녁을 먹고 나서 회의가 있다면서 나갔던 선희는 곧 되돌아 오더니, 부엌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귀'속말로 소군거렸다.

《어머니, 기덕이네 집에 웬 낯 모를 사람이 왔어요.》

《기덕이 외삼촌 아니든?》

어머니는 하던 일이 바쁜 김에 선희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니예요. 기덕이 외삼촌은 키가 작지 않아요?! 멀직암치서 보노라니까 키가 후리 후리한 웬 사람이 기덕이네 집 앞에서 사면을 두리번거리다가 주인을 찾지도 않고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집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사랑'방 불이 껌벅하고 꺼지질 않겠어요. 아무래두 이상해요.》

《그게 웬 사람일까? 또 손님이 왔으면 왔지 불은 왜 껐을까?》

《그러기에 말이지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회의에 가다 말고 돌아왔어요.》

《거 참 이상하구나!》

《자위대에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 계집애가 왜 그렇게 덤비니? 잘 알지두 못하면서 말하긴 뭘 말한단 말이냐!》

《그래두……》

《제 발'등에 불티만 와닿지 않으면 그저 모르는척 하는 게 제일이란다. 남의 일에 참견할 게 무어냐!》

그리하여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도록 선희에게 톡톡히 타일러 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조합 축사에서 돼지들이 여러 마리 갑자기 죽었다. 뒤이여 기덕이 아버지가 간첩들의 끄나불이 돼서 한 짓이란 것이 판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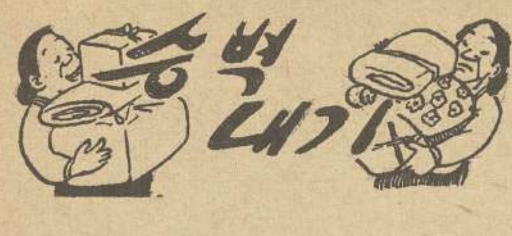
만일 제때에 대책을 세워서 그를 인민들의 감시 밑에 두었다면, 조합에도 손해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선희네의 분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유 향 림

월동 준비는 되였다

음악 대학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에서는 귀중한 석탄을 필요 이상《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월동 하기 위한 축사 보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최 영근 그림



승벽 내기

유 향 림

춘희 어머니와 복실 어머니와의 사이의 승벽 내기는 차츰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어졌다.

한 때는 어떻거면 한 자루라도 로력을 더 들여서 분배를 더 탈 수 있을까 하는 걸로 두 안악네 사이에 팽팽한 승벽 내기가 있었다. 이런 협소한 생각에서 출발한 일이라 때로는 프로병에 걸려서 눈가림 일을 하려다가 비판을 받은 경험도 두 안악네가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작업에 대한 그들의 열의가 대체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또 한 때는——정확히 말해서 춘희와 성삼이의 약혼이 발표되였을 때는——복실 어머니는 성삼이보다 더 나은 사위를 골라야겠다는 일념에 분주히 몰아갔다.

그래서 혼사 말이 날 때마다 의례히 성삼이와 비교해 보고는 번번히 퇴짜를 놓군 했다. 그러다가 결국 건넌 마을 창덕이를 사위로 골라잡게 되였는데, 이런 일이야 뭐 딸 둔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기도하다.

또 딸 시집 보낼 준비에 골몰했다 하드래도 정도를 넘지만 않았더면 말밥에 오르내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잔치 날'자가 가까와 짐을 따라 두 안악네의 승벽 내기는 더욱 괴벽스러워 졌다.

복실 어머니는 본시가 조금 수다스러운 편이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딸을 춘희보다 잘 차려서 살린다고 광포했고, 춘희 어머니는 새촘한 성미라 아무 말도 없으나 지지 않으려고 눈을 밝히고 들었다.

복실 어머니가 뉴똥 치마를 사왔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며 기뻐하는 것을 본 춘희 어머니는 어느새 뉴똥 치마 뿐 아니라 양단 저고리까지 사들였다. 이를 알자 이번에는 복실 어머니가 등이 달아서 양단 저고리 뿐 아니라 또 무슨무슨 저고리들을 몇 가음 덧붙여 사오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승벽 내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되고 보니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지고 말았는데, 소문이 퍼지자 두 안악네는 도리혀 우쭐해져서, 간혹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서 질투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인적마다 딸이 반대를 하면 그건 의례 인사차례로 사양하는 걸로 여긴 것은 물론이다.

어느 날 밤, 복실이는 어머니더러 또 한 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 난 정 속상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들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 춘희네가 뭐 별난 걸 또 사왔다드냐?》

《에그, 어머닌 또 그러네! 어머니와 춘희 어머니의 그 승벽 내기는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돼 있어요. 난 낯 들고 나다니기도 부끄러워서……》

《에, 넌 공연한 소리 말구,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으려무나…》

《어머니, 다른 집들을 좀 보아요. 조합이 돼서 일두 잘하구 풍년두 들구 해서 분배를 많이 탔다구 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마구 돈을 쓰는 집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남들은 모두 문화적인 살림을 꾸린다구, 변소와 재'간을 개조하구 초가 이엉을 벗기고 기와를 넣기도 하구, 돼지막을 위생적으루 다시 짓구 하는데 우리만은 그런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난 정 창피해서 못견디겠어요.》

《에, 넌 잠자코 있으라는데두……》

복실이는 계속하여, 쓸모 없는 승벽 내기 때문에 분배 받은 걸 다 랑비하지 말고 남들 같이 우리도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루루히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그걸 겸손한 사양으로 여기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춘희도 역시 자기 어머니더러 권면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래서 춘희와 복실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후에 성삼이와 창덕이도 서로 의논한 끝에 두 쌍의 결혼식을 공동으로 함께 하고 비용을 네 집에서 나누도록 젊은이들끼리 정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 두 어머니가 결혼 잔치를 더 잘하려고 승벽 내기를 할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어머니들이 이에 동의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이것으로 두 안악네의 승벽 내기는 끝장이 났는가 했더니, 잔치'날이 가까와오는 어느날 저녁에 춘희 어머니는 두텁한 비단 방석을 하나 보에 싸서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웬거예요?》

《잔치'날 큰상 받고 앉을 때 쓰려구…》

춘희의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이 글썽해 졌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 잔치에서까지 복실이 어머니를 이겨 보려고 사온 것에 틀림 없었다. 춘희는 어머니의 이 완고한 승벽이 안타까왔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가서 물러오세요.》

《네가 정 쓰기 싫다면 내 쓸테니 그건 걱정 할아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물러와요.》

춘희 어머니는 밤새껏 한숨만 쉬더니 이튿날에 하는 수 없이 비단방석을 싸들고 무르러 가려고 집을 나섰다.

동네 밖으로 나오면서 돌아 보니 아닌게 아니라, 이 가을에 다른 집들은 모두 깨끗해 졌는데 자기네 집과 복실네 집과 주정뱅이 황령감네 집만이 구태의연하게 쾌조조한 것이 새삼스럽게 눈에띄였다…

목침'감부터 잘라 놓고

일부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건설에서의 선후차를 고려 하지 않고 차요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공작 기계를 어데다 부릴까요?
—가만…우리 사무실부터 준공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최 영근 그림

불결한 곳에 쉬파리 모여 들듯이…

머리가 썩은 곳에는…

홍 종호 그림

록음실

아무리 맞춰 봐도

—지배인 동무 아무리 맞춰 봐야 맞지 않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리가 있겠소. 다시 한번 찬찬히 맞춰 보도록 하시요.

철산 제작소로부터 기다리던 광차 발통(바퀴)을 인수한 성흥 광산 굴진부에서는 뜻밖의 혼란이 일어났다. 인수한 발통의 적지 않은 것이 광차와 맞지 않았다. 지배인 동무한테 보고하였더니 지배인 동무는 아예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다시 찬찬히 맞춰 보란다. 믿어지지 않는건 지배인 동무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몇번이고 또맞춰 보았으나 아무리 맞춰 봐도 역시 맞지 않았다. 이렇듯 철산 제작소에서는 제품이 규격에 맞게 제작되였는지 어떤지 검사하는 검사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규격은 어떻게 됐든지 제품이 쓸수 있건 없건 뭐어놓고 수'자만 채우려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국가 재산의 랑비이다.

모름지기 이 제작소 지도 일'군들의 생각은 발통은 얼마던지 만들어 보낼터이니 발통에 맞춰서 광차를 만들어 쓰라는 심산이신 모양.

수산반이 제일이지

—수산반이 제일이지 그까짓 농산반이야 뭐………

반농, 반어 협동 조합인 해주 룡당 협동 조합 지도 간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수산반 수입이 상상 외로 버쩍 높아졌을 때부터이다.

위원장 동무는 흔히 수산반에 나아가 계시는 일이 많았고 또 자주 취중에 돌아오시군 했다. 그래서 추수가 한창인 이때까지 알곡 생산의 투쟁 목표도 5개년 계획 작성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자급비료 생산 예정 수'자쯤 아직 잘 모른다 해서 그다지 커다란 잘못이라고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조합 사무실에 달린 한간'방이 조합 탁아소로 되여 있건만 위원장 동지는 단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셨다면야 여부가 있었으련만……

헐린 바람벽에 엉성한 노전우로 흙이 물큰물큰 올라와도 또 누워 자는 애 얼굴이 파리떼에 붙혀 새카매도 보모 선생님은 두팔로 휘—하고 날리면 그만—

복잡한 농사일은 머리가 아파서 씨원한 바다에서 물좋은 생선 맛을 보는 것만 못하시다고——

닭털 오리털도 귀중한 외화가 되건만

급양 관리소와 그 산하 식당들에서는 우리야 순전한 소비 기관이니깐 하고 시원한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신다. 그야 틀림 없는 소비 기관이기야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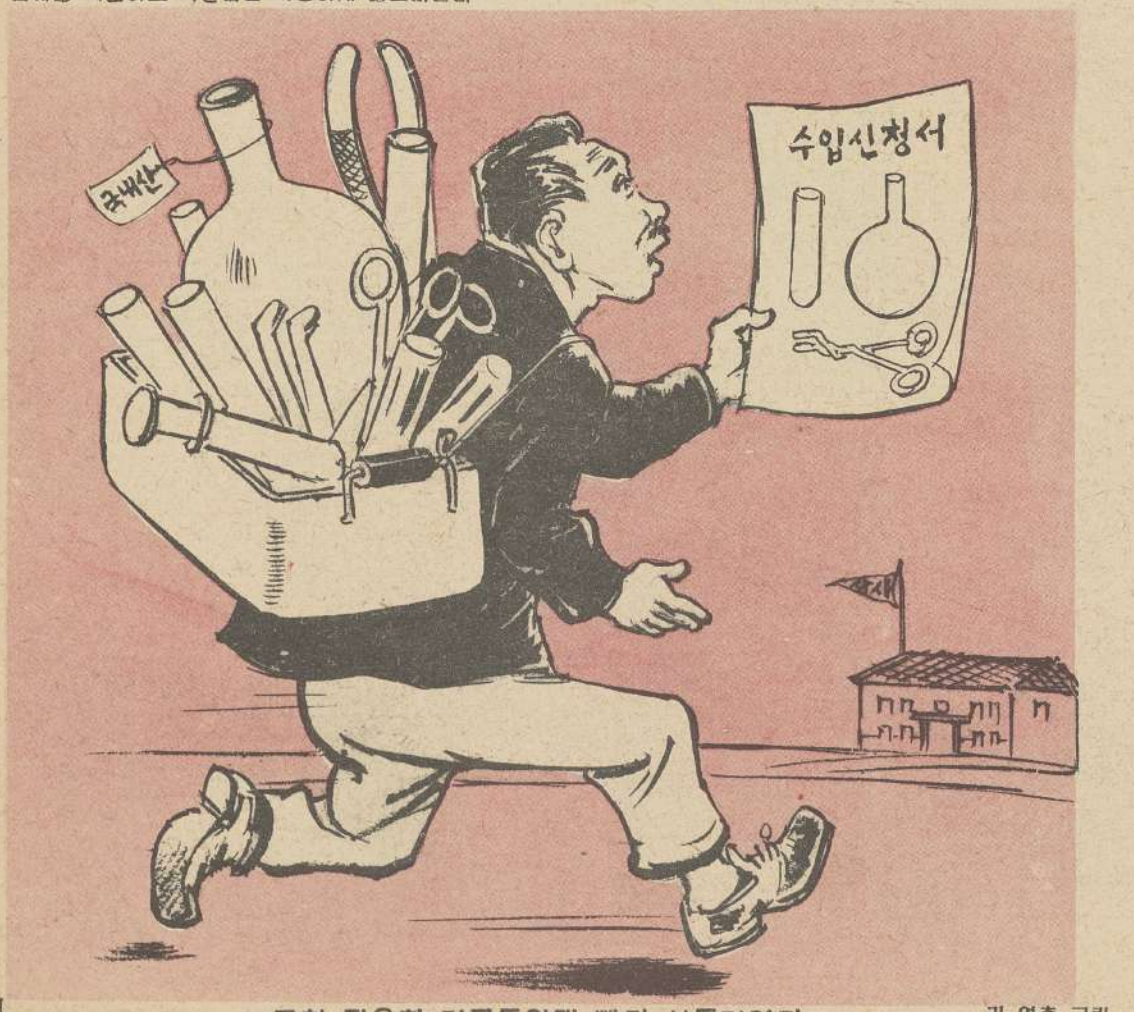
생산 직장들에서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 지시를 받들고 증산 목표까지 초과하겠다고 온갖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있는 요사이건만 우리야 순전한 소비 기관이니깐—

그러길래 해주 급양 관리소 산하 식당들에서는 날마다 수 10kg씩 모을 수 있는 오리털, 닭털을 한번도 회수해 본 일이 없다. 오리 한마리에 몇 kg의 털 이 나는지 또 오리털 한kg의 수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외화 획득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은 순전한 소비 기관에서는 알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되시는 모양, 해주 역전 식당에서도 날마다 수십마리의 오리를 잡건만 1kg의 털도 수집한 일이 없다. 또 해주 식당에서는 9월 8일 9일 량일간에 오리 418마리 닭 159마리를 잡아 40 여kg의 털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겨우 3kg 밖에 수집 못하고 있다.

대여섯살짜리 코 흘리기도 뜨락또르나 자동차하고 바꿔 온다고 복숭아씨 살구씨를 모으고 있는데…오리털 닭털도 하치않다 하시니 어찌된 일일까?

업은 아이 찾기

일부 치료 기관 일'군들은 치료기구들이 엄연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에만 의존하고 국산품을 리용하지 않으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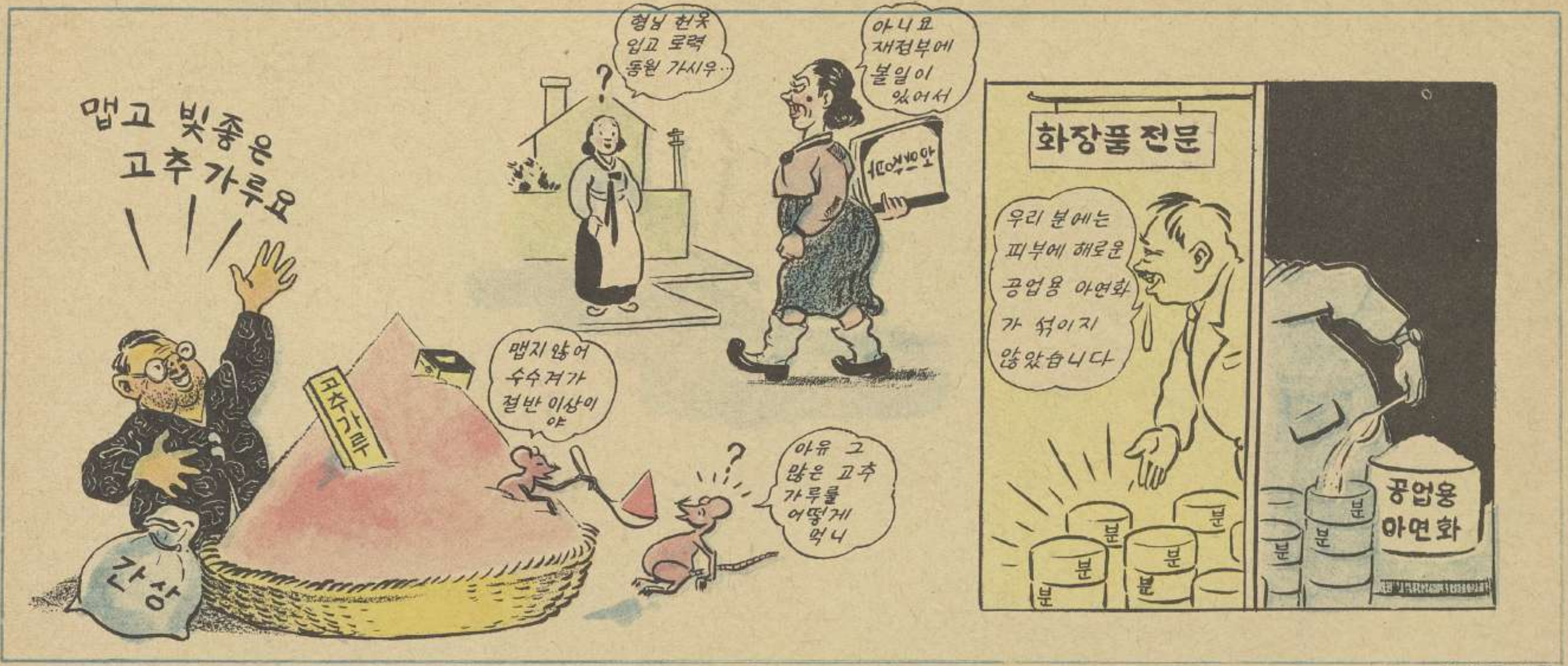


—급히 필요한 기구들인데 빨리 서둘러야지

리 영춘 그림

악덕 상인의 나드리옷

일부 개인상 가운데는 부정한 물건으로 상품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는 현상과 이중 장부로 재정부의 눈을 속이며 탈세하는 모리적 현상을 볼 수 있다.



최 영근 그림

걸만 보고

평양시 동구역 인민 위원회 국유 건물 관리부의 건물 보수 계획에 의해서 보수 사업소에서는 동신동 23, 24반 건물의 보수 사업도 시작했다.

평양 시내의 국유 건물은 초가이영은 전부 없새고 모두 기와를 올리게 됐다. 그래서 덕호네 집은 맨 선참으로 수리하게되였다. 그런데 지붕만 고치는줄만 알았더니 몇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몇사람은 온돌을 뜯으려고 방으로 들어온다. 덕호 어머니는 당황하여

—온돌은 뜯지않아도 일없는데요. 불도 잘들이고—

—그래도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계획을 다 해야지요. 계획을 못하면 우리 책임인걸요.

그런가 하면 옆집에서 우리 구들은 불이 안드리고 습기가 차서 못견디겠으니 고쳐 달라고 신청해 왔다.

—기와집이요?

—네

—곤난한데요. 계획에 없는데요.

그러자 옆집에서 비가 샌다고 고쳐 달라고 신청해 왔다.

—기와집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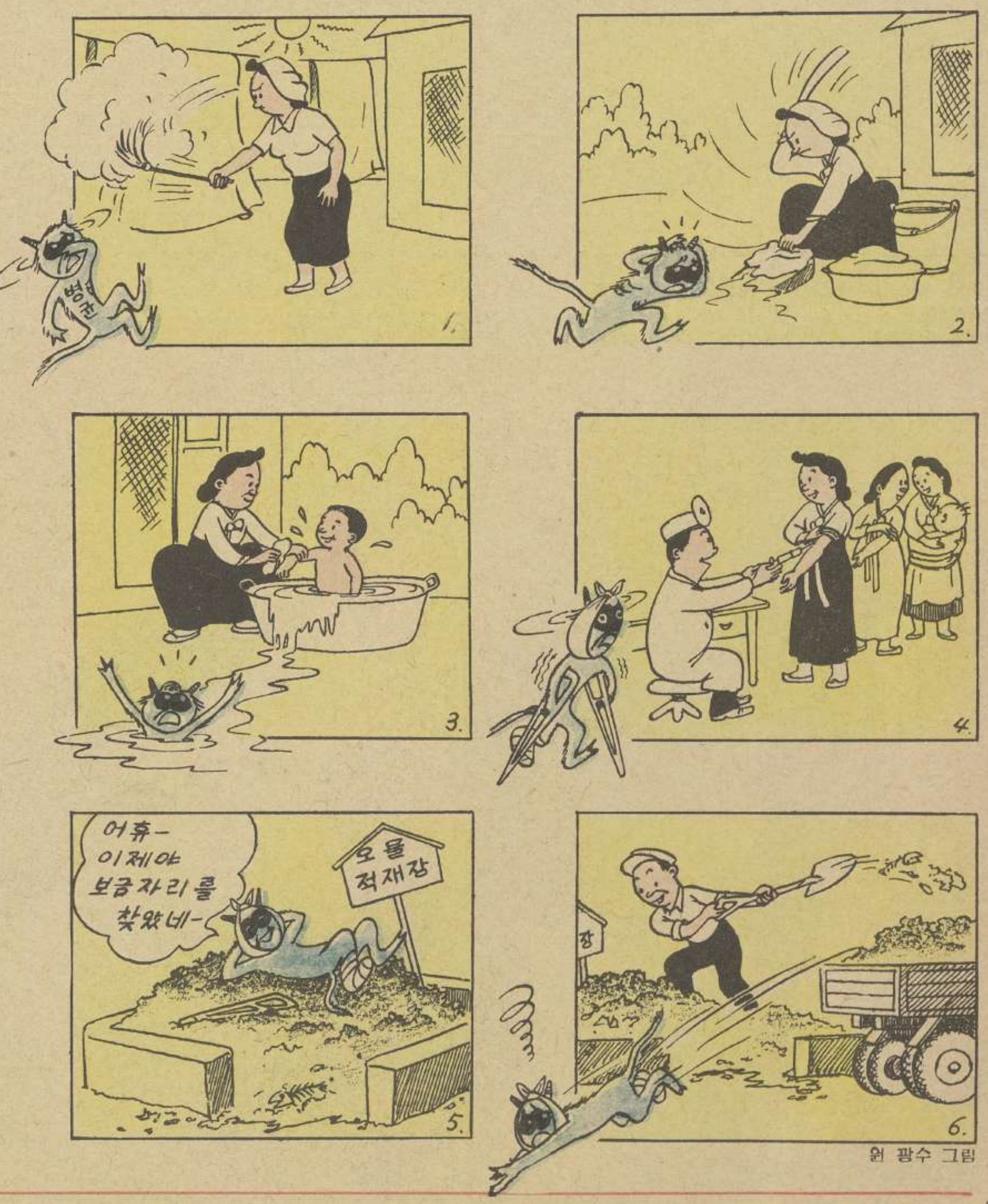
—네

—기와집 같으면 계획에 없겠는데요

보수 공사는 이처럼 현지 조사를 나왔던 구역 건물 관리부 지도원이 겉만보고 작성한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였다고—

김 상 애

병나서 울지 말고 웃으며 예방하자!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 장 진광,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흥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857. 10. 10 40655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10. 15 값(50)

쏘련의 다계단 탄도 로케트의 위력

홍 종호 그림

8 ПЭ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